

최근 콜롬비아 주요 경제이슈와 한-콜 FTA 활용 방안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2012-13 콜롬비아 경제 키워드 / 3

- | | |
|---|--|
| 3 | 1. FTA 확대 및 경제개방 정책 추진 |
| 4 | 2. 정부주도 국가개발 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
| 6 | 3. 내수 및 대외교역 동반 성장 |

II. 콜롬비아 경제 환경 변화 및 전망 / 9

- | | |
|----|------------------|
| 9 | 1. 콜롬비아 경제 환경 변화 |
| 13 | 2. 콜롬비아 경제 전망 |

III. FTA 이후 한국의 콜롬비아 시장 진출 방안 / 14

- | | |
|----|---------------------|
| 14 | 1. 한-콜롬비아 관계 현황 |
| 13 | 2. 한-콜롬비아 FTA 효과 전망 |
| 18 | 3. 한-콜롬비아 협력 확대 방안 |

요 약

I. 2012-13 콜롬비아 경제 키워드

- **(FTA)** 콜롬비아는 FTA 확대 및 지역 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경제와의 통합 및 중남미 경제 선도국으로서의 동시에 노리고 있음.
- **(성장기반 확보)** 총 예산 2,500불 규모의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도로, 인프라, 자원, 에너지개발, 신산업 육성 등 국가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초점
- **(국내경제 호황)**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 수준의 고성장 기조 유지

II. 콜롬비아 경제 환경 변화 및 전망

- **(프로젝트)** 국가개발 계획에 따른 도로, 항만, 공항 및 주택, 의료시설 등 건설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면서 중남미 프로젝트 중심국으로 부상
- **(내수시장 성장)** 2012년 이후, 콜롬비아 내수시장은 약 5~6% 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며 1인당 구매력은 1만달러, 실업률은 9%대로 낮아질 전망
- **(수출선 다변화)** 미국, EU 및 중남미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공략을 강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III. FTA 이후 한국의 콜롬비아 시장 진출 방안

- 내수 소비 증가에 따른 소비재 마케팅 및 중상류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제품군 집중 지원
- 콜롬비아 정부 정책 및 산업 트렌드에 맞춘 진출 품목 선정 및 선별적 마케팅 필요
- 프로젝트 분야 대중소 공동 컨소시엄 구성 또는 대기업 수주 후 협력 업체 형태의 동반 진출 추진
- 콜롬비아를 거점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FTA 미체결 국가 시장 우회진출 방안 검토

I. 2012~13 콜롬비아 경제 키워드

1. FTA 확대 및 경제개방 정책 확대

□ FTA를 활용한 국가 성장 추진

- 콜롬비아는 전 세계 48개국과 11개 FTA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6월 25일 한국과의 FTA도 최종 타결하였음.
- 콜롬비아는 FTA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꾀하고 있으며 주력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중남미 외국인 투자 허브 국가 건설도 목표로 삼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콜롬비아의 FTA 확대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남미 역내 경제통합 동시 겨냥

- 메르코수르, 안데안 등 중남미 주요 경제블록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11년 페루, 칠레, 멕시코 등과 태평양경제연합체 구성
- 태평양경제연합(Alianza del Pacifico)은 중남미 최대 경제블록인 메르코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총 인구 2억, 중남미 전체 수출의 55%를 차지할 전망

□ 한-콜 FTA로 아시아 시장 진출 거점 확보

- 한-콜 FTA는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로 이를 계기로 콜롬비아 기업의 본격적인 아시아 시장 진출이 시작될 전망
- 한국을 테스트마켓으로 활용해 자국 상품의 아시아 지역 내 시장성 평가 및 전략 수립을 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정부주도 국가 개발 계획 (Plan Nacional de Desarrollo)

□ 국가개발 환경 조성

- 콜롬비아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치안 및 테러조직 소탕이 강력 추진되면서 사회 불안요소 감소
- 치안 안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 유입인구 증가
- 국제 원자재 수요 및 내수 증가가 콜롬비아 주요 산업 개발 확대로 이어지면서 국내외 투자 수요 자극
-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낙후된 인프라 개선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 콜롬비아 국가개발 4개년 계획(PND)

-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개발계획은 인프라, 산업, 사회복지, 환경 분야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총 예산 2,500억불 규모의 개발계획은 2014년까지 중산층 인구 확대, 국민소득 7,200달러, 실업률 한 자릿수 달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주요 투자분야는 도로, 인프라, 자원, 에너지개발, 신산업 육성 등이며 국가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초점
- 콜롬비아 정부는 동 계획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성장기반 확보를, 외부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투자 유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콜롬비아 국가개발계획(PND) 주요 분야 및 내용>

분야	세부 추진분야	주요내용
지속가능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주택건설	- 주택 100만호 건설
	상수도 건설	- 상수도 보급(290만명)
	하수처리시설 건설	- 하수도 보급(470만명)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구축	- 인구 60만 이상 15개 도시
	대중교통 전략시스템 구축	- 인구 20~60만 도시
	자원개발	- 전력생산 14,881MW로 확대 - 원유, 석탄 생산량 확대
	농축산업 기반 강화	- 160만ha, 16만 농가에 이전 - 641건의 평화개발동맹 촉진 (10만개 일자리 창출)
	도로 인프라 확충	- 2차선 도로 확대(2,000km) - 포장도로 4,000km 추가 - 75,000km 신규도로 건설
사회적 번영 및 기회균등	기술 혁신	- 바이오, 신소재, 의료 기술 개발 - 초고속 인터넷 보급 4배 확대 - 서비스 수출 52억 달러 달성 - 성장동력산업 20개 분야로 확대
	극빈가정 구호 프로그램	- 450만 극빈가정 구호프로그램
	의료시스템 개혁	- 의료보험 시스템 확대
	교육시스템 개편	- 초·중등교육 확대(60만명 추가) - 고등 정규교육 확대(45만명 추가)
치안, 인권보호	조직범죄, 테러조직 해체	- FARC, ELN 등 테러조직 와해
	민생치안 강화	- 시민보호, 교도소 인프라 개선
환경 개선 및 국제사회 편입	온실가스 저감	- 중남미 녹색국가 위상정립
	OECD, APEC 가입	- 경제, 사회발전을 통한 국제 사회 영향력 강화
국토 권역화	권역별 특화산업 중점 육성	- 6개 권역 구분 및 특화 산업 개발, 육성

3. 내수 및 대외교역 동반 성장

□ 연 5% 수준 성장세 유지

-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 수준의 고성장 기조 유지
- 2011년 국가 총생산(GDP)은 2007년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1인당 GDP 역시 4년 만에 50% 증가한 7,000 달러 수준 도달

<콜롬비아 주요 경제지표 현황>

지표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GDP 성장률	%	6.9	3.5	1.7	4.0	5.9	4.7
총 GDP	십억달러	210.6	235.7	233.4	287.2	328.4	378.7
1인당 GDP	달러	4793.6	5303.0	5188.8	6311.6	7131.6	8127.2
GDP 대비투자비중	%	23.0	23.4	22.7	22.2	24.7	24.6
물가상승률	%	5.5	7.0	4.2	2.3	3.4	3.5
실업률	%	11.2	11.3	12.0	11.8	10.8	11.0
인구	백만명	43.9	44.5	45.0	45.5	46.1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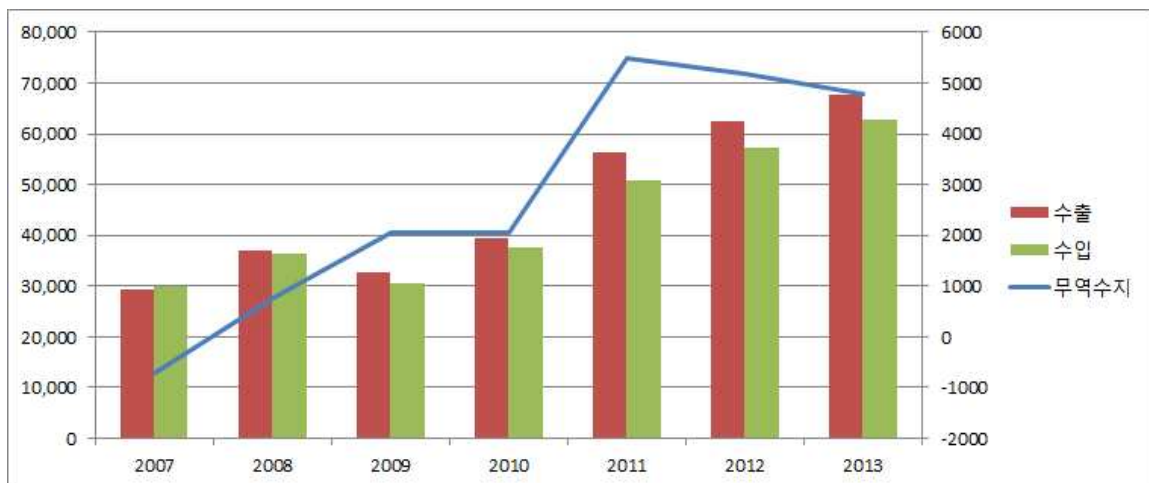
자료: IMF

- 물가 상승률 또한 2008년까지 7%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10년과 '11년 각각 2.3%와 3.4%로 안정세 유지
- 연간 GDP 대비 투자비중 역시 2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정부 투자액은 약 600억불 수준을 기록
- 그러나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은 콜롬비아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대외교역, 대폭 확대 전망

- 2011년 콜롬비아의 전체 대외교역액은 1,100억 달러 수준으로 2010년 대비 약 39% 증가

<콜롬비아 연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자료: EIU

- 수입은 미국, 중국, 멕시코 3개국의 비중이 50%에 달하며 수출은 미국, 네덜란드, 칠레의 비중이 매우 높음.

<콜롬비아 연도 및 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불, %)

순위	국가명	연도			수입시장 점유율	2011 증가율
		2009	2010	2011		
	Total	32,853	39,552	56,509	100	42.9
1	미국	12,879	16,746	21,650	38.3	29.3
2	네덜란드	1,345	1,617	2,487	4.4	53.8
3	칠레	627	907	2,190	3.9	141.4
4	중국	950	1,967	1,979	3.5	0.6
5	파나마	310	899	1,948	3.5	116.7
36	한국	107	373	275	0.5	-26.1

자료: WTA

<콜롬비아 연도 및 국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순위	국가명	연도			수출시장 점유율	2011 증가율
		2009	2010	2011		
	Total	32,898	40,683	54,675	100	34.4
1	미국	9,456	10,477	13,594	24.9	29.7
2	중국	3,715	5,477	8,176	15.0	49.3
3	멕시코	2,298	3,857	6,059	11.1	57.1
4	브라질	2,147	2,370	2,740	5.0	15.6
5	독일	1,338	1,658	2,215	4.1	33.6
9	한국	680	940	1,234	2.3	31.2

자료: WTA

-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 석탄 등 에너지자원 및 금, 커피, 생화, 바나나 등 1차 상품 중심으로 구성

<콜롬비아 연도별 주요 수출품 현황>

(단위: 백만불, %)

No.	HS	품목	연도			점유율	2011
			2009	2010	2011	2011	증감율
	Total		32,853	39,552	56,509	100	42.87
1	2709	원유	8,053	13,141	22,981	40.7	74.87
2	2701	석탄	5,257	5,521	7,659	13.6	38.74
3	2710	휘발유	1,912	2,860	4,543	8.04	58.84
4	7108	금	1,537	2,095	2,743	4.85	30.96
5	0901	커피	1,575	1,912	2,641	4.67	38.09
6	0603	생화	1,049	1,240	1,238	2.19	-0.14
7	7202	합금철	726	968	814	1.44	-15.92
8	0803	바나나	837	748	810	1.43	8.26
9	1701	사탕수수	382	450	591	1.05	31.32
10	2704	코크스	159	494	540	0.96	9.3

자료:WTA

-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 전자제품, 의약품 등 제조업 제품 비중이 높으며 농기계, 건설기계 등의 수입이 증가

<콜롬비아 연도별 주요 수입품 현황>

(단위: 백만불, %)

No.	HS	품목	연도			점유율	2011
			2009	2010	2011	2011	증감율
	Total		32,898	40,683	54,675	100	34.39
1	2710	휘발유	1,164	2,024	3,794	6.94	87.48
2	8703	승용차	1,266	2,121	2,790	5.1	31.51
3	8802	항공기	2,460	1,720	2,659	4.86	54.59
4	8704	상용차	660	985	1,689	3.09	71.36
5	8517	휴대전화	864	1,260	1,689	3.09	34.02
6	8471	컴퓨터	926	1,184	1,356	2.48	14.57
7	3004	의약품	774	865	1,008	1.84	16.62
8	1005	옥수수	671	806	927	1.7	15.04
9	8701	트랙터	101	171	851	1.56	396.3
10	4011	타이어	443	547	763	1.4	39.61

자료:WTA

II. 콜롬비아 경제 환경변화 및 전망

1. 콜롬비아 경제 환경 변화

□ 대규모 국가 개발로 건설 프로젝트 중심국으로 부상

- 콜롬비아 정부가 금번 PND와 같은 사회, 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례는 없었음.
- 금번 대규모 국가 개발 계획은 내부적 요소로 인해 더딘 성장을 이어온 국가경제의 획기적인 성장 동력 마련과 사회 복지 분야의 선진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함.
- 2014년까지 이어지는 PND는 미래 콜롬비아의 지속 성장에 핵심이 되는 도로, 항만, 공항 및 주택, 의료시설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동반하고 있음.

<콜롬비아 정부의 지표별 중장기 목표>

주요 전략 지표	2011년	2014년	2019년
1인당 국민소득(U\$)	5,139	6,250 *	20,000(2032년)
경제성장률(%)	4.1	6.0	6.0
혁신지수(GDP대비 과학기술투자비율/%)	0.39	0.7	2.0
부가가치 수출비율(재화 수출비율/%)	29.0	40.0	
통상개방율(수출+수입/GDP, %)	33.0	43.0	
비정규 고용률(%)	61.1	54.4	33.0
외국인직접투자(U\$백만)	7,169	13,200	
수출(U\$백만/FOB)	32,853	52,600	109,172
외국인 방문객(천명)	2,494	4,000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속자(백만명)	2.2	8.8	
인터넷 접속 중소기업 비율(%)	7.0	50.0	
인터넷 접속 가정 비율(%)	27.0	50.0	
실업률(%)	12.0	8.5	5.0
농축산 생산량(천톤)	33,752	38,695	50,263
교통인프라 경쟁력(2차선이상 민자도로/Km)	884	1,834	
민자 철도망 운영(Km)	906	1,154	
교통, 통신, 광업에너지 인프라 민간투자(조 페소)	112.7	126.7	
대중교통통합시스템 운영도시(개시)	5	15	20
광업 역동성(연간 석탄 생산량/백만톤)	73	124	
에너지 역동성(전력 발전 용량/MW)	13,517	14,881	
석유 역동성(원유가스 생산량/BPEDC)	990,600	1,400,000	
건설 역동성(주택 신축/호)	536,162	1,000,000	1,800,000
위생시설 신규 접근 인구(백만명)	3.6	4.8	3.8
빈곤층 비율(%)	45.5	40.0	20.0
영아(1세미만) 사망률(%)	20.6	12.2	
인력개발(교육 이수율/기초-중등-고등/%)	91-75-35	100-91-47	
교육의 질(언어영역, 수리영역 고득점율/%)	27	37	
고급 의료서비스 수혜자 비율(%)	79	90	
청소년(14-26세) 실업률(%)	21.6	17.5	
남녀간 실업률 격차(%)	6.4	3.2	
살인범죄율(인구 십만명당 피살자수/명)	35.2	32.0	
환경지속성(상수원 유역 보호 삼림면적/ha)	310,000	400,000	
환경지속성(상업적 임업 경작지 면적/ha)	369,203	601,453	
국제투명성지수(반부패도/%)	3.5	4.0	
광통신망 연결 도시수(개시)	200	700	

자료: DNP

- 이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 자체만으로도 국내 경기 진작 및 고용창출, 내수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외부적으로는 콜롬비아 건설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 수요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내수가 힘이 되는 경제 성장

- 콜롬비아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사회적 불안이었으며 내수의 경우 치안확보 미흡이 최대 성장 저해요인이었음.
- 또한 치안 불안은 콜롬비아인들의 여가활동 및 야외 활동에 가장 큰 제약이 되었음.
- 그러나 최근 획기적인 치안 안정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외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였음.
- 동시에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국내 경기 호황으로 이어지면서 2011년 연간 내수 소비가 약 7% 성장하였음.
- 2012년 이후, 콜롬비아 내수시장은 약 5~6% 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며 1인당 구매력은 1만달러, 실업률은 9%대로 낮아질 전망
- 이에 따라 향후 국내소비가 콜롬비아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됨.

□ 미개척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

-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친미 성향이 강한 국가로 정치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대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임.
- 실제로 2011년 기준 전체 교역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수준이며 수출입 비중은 각각 38%와 25%를 차지
- 그러나 최근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공략 및 수출선 다변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11년 콜롬비아 총 수출에서 한, 중, 일 3국의 비중은 10%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선진국 경기 침체 여파와 함께 콜롬비아 정부의 수출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
- 콜롬비아 정부도 태평양 연안 항구 시설 및 국내 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확대에 대비할 계획임에 따라 향후 아시아-콜롬비아 관계 강화가 기대됨.

2. 콜롬비아 경제 전망

□ 광산업 및 석유산업이 수출 견인

- 2011년 콜롬비아 전체 수출에서 광업 및 석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을 기록하였음.
- 세부 품목별로는 원유 수출이 23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0.7%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석탄, 휘발유, 금, 합금철 등이 주요 수출 품목임.

<콜롬비아 주요 광물 및 석유제품 수출 현황>

(단위: 백만불, %)

HS	Total	연도			수출 비중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32,853	39,552	56,509	100	100	100
2709	원유	8,053	13,141	22,981	24.51	33.23	40.67
2701	석탄	5,257	5,521	7,659	16	13.96	13.55
2710	휘발유	1,912	2,860	4,543	5.82	7.23	8.04
7108	금	1,537	2,095	2,743	4.68	5.3	4.85
7202	합금철	726	968	814	2.21	2.45	1.44
2704	코크스	159	494	540	0.49	1.25	0.96

자료: WTA

-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콜롬비아 경제 역시 원자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이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콜롬비아 전체 수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국내 산업, 투자, 소비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력 또한 막강함.
- 그러나 2012년의 경우 미국, 유럽, 중국 등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산 원유 수입을 5~10배까지 확대하고 있어 전체 수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고용시장 안정 및 내수 성장세 유지

- 2012년 1분기까지 콜롬비아 정부는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 감소를 이끌었음.
-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전체 실업률은 점진적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분기 실업률 11.6%는 콜롬비아 통계청이 실업률 조사를 실시한 200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 콜롬비아 실업률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 분야 고용 확대이며 제조업, 소매유통업 등도 일자리 확대의 원동력이 되었음.
- 실제로 건설 분야 일자리는 전년대비 16.5% 증가하였으며 제조업과 소매유통업은 각각 9.4%와 5.2% 증가하였음.
- 고용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내수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2년 콜롬비아 내수시장 성장률은 5.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외국인 투자 친화적 정책 추진

- 콜롬비아 정부의 중장기 경제 정책은 ① 비즈니스 환경개선, ②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③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가 중심
- 또한 11%에 달하는 고질적인 실업률 개선 및 중산층 확대도 콜롬비아 정부의 우선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그 결과 정부 투자 외에 외국자본 유치 및 다국적 기업의 對 콜롬비아 투자가 정책 과제 해결에 필수요소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시장개방 및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를 위한 **투자홍보 강화 및 비즈니스 환경개선, 세제혜택**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임.
- 또한 기존 산업 기반 강화 및 신규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IT, 물류 및 문화컨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III. FTA 이후 한국의 콜롬비아 시장 진출 방안

1. 한-콜롬비아 관계현황

□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실질적 우호관계로 발전

-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가로 국제 사회에서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는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음.
- 그러나 경제관계에서는 상호간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관계 강화의 여지가 많은 상황
- 또한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 및 큰 내수시장은 양국 교역 투자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요소임.
- 이에 따라 금번 FTA는 한-콜롬비아 관계가 실질적 우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한-콜롬비아 교역 및 투자관계

- 2011년 기준 양국 교역액은 약 20억 달러로 우리나라가 12.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한-콜롬비아 연도별 무역 현황>

(단위: 백만불, %)

연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2007	1,121	22.8	116	-43.4	1,004
2008	1,091	-2.7	143	23.3	947
2009	797	-26.9	125	-12.9	672
2010	1,389	74.2	432	245.9	956
2011	1,614	16.2	380	-12.1	1,234
2012.5	684	2.3	120	-46.5	564

자료: KITA

- 한국의 대 콜롬비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타이어, 건설 중장비 등 총 16억 달러 규모
- 주요 수입 품목은 커피, 원유, 합금철 등이나 전체 수입액이 4억 달러 수준에 불과함.

<한국의 대 콜롬비아 분야별 투자 현황>

(단위: 천불)

업종	신고금액	투자금액
Total	234,940	92,930
식료품 제조업	2,500	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465	3,44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0	13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17,010	87,99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49	4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0	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	10
전기장비 제조업	100	1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799	1,011
기타 제품 제조업	528	18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양국 투자 분야의 경우 콜롬비아의 대 한국 투자는 없으며 우리나라는 20123월 기준 광업 및 섬유업 등에 약 9천만 달러에 불과
-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의 對 콜롬비아 자원 투자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양국 투자교류 역시 확대 전망

2. 한-콜롬비아 FTA 효과 전망

□ 상품 분야 즉각적 수혜 기대

- 양국이 FTA 발효 후 10년 내 대부분의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향후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대폭 증가될 전망
- 콜롬비아는 현재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해 5~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35%의 높은 관세 적용

<콜롬비아 5대 자동차 수입 대상국 현황 및 적용 관세율>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관세율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Total		1,266	2,121	2,790	100	100	100	-
1	멕시코	108	327	604	8.56	15.41	21.63	0%
2	한국	231	375	496	18.21	17.67	17.78	35%
3	일본	66	207	239	5.2	9.77	8.58	35%
4	독일	78	115	151	6.19	5.42	5.43	35%
5	미국	44	78	103	3.48	3.67	3.68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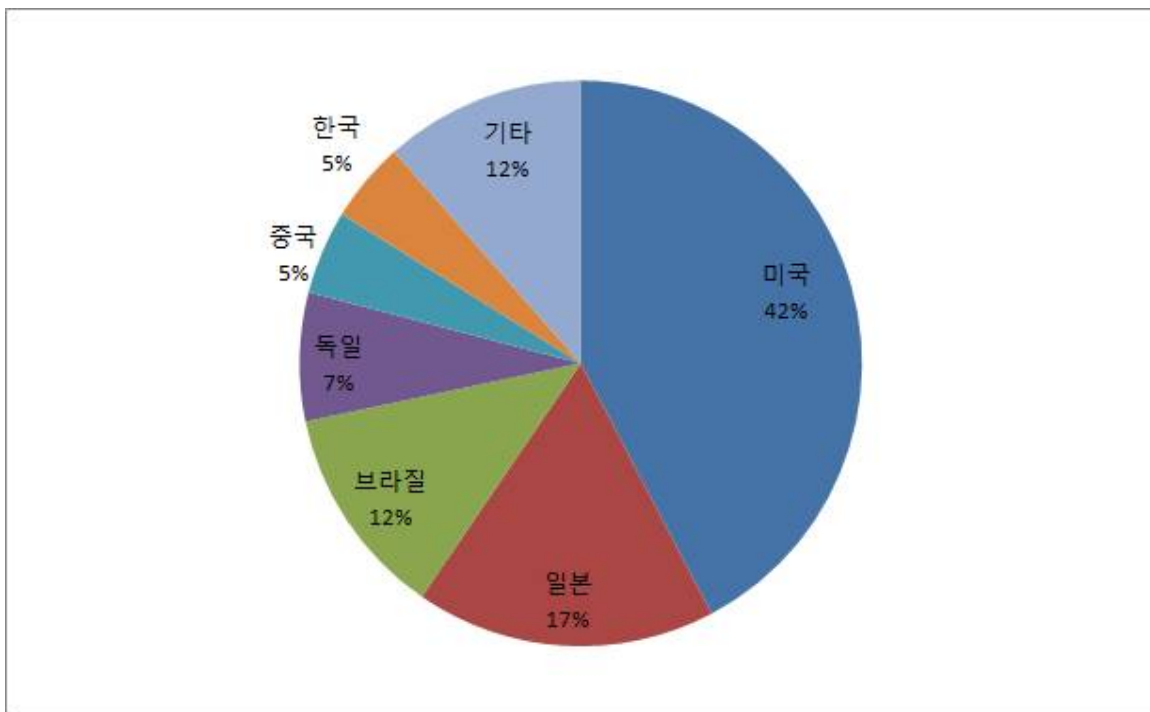
자료: WTA, LEGIS

- FTA 발효 이후 콜롬비아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10년 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며 중형 디젤자동차의 경우 9년 내 관세 철폐에 합의함.

□ 건설장비 수출 확대 예상

- 콜롬비아 건설 붐으로 당분간 건설장비 및 자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도로건설과 공항, 항만, 병원 등 공공시설 및 신규 주택건설이 증가하면서 관련 장비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
- 또한 본격적인 유전 및 광산 개발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기자재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

<콜롬비아 건설장비 수입시장 점유율(HS 8429)>



자료: WTA

- 현재 콜롬비아는 건설장비 일부품목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FTA 발효 후 관세 철폐가 기대될 경우, 가격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중소기업 품목 확대 기대

- 자동차 및 건설장비 분야 부품 및 소모품 위주로 중소기업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현지 소득수준 향상 및 소비증가에 따라 의류, 생활소비재 등도 유망품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정부의 공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 분야 수요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농기계, 비료, 건설 및 농업용 펌프 등도 FTA 이후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임.

3. FTA를 활용한 한-콜롬비아 협력 확대 방안

□ 내수시장 진출 확대 지원

- FTA로 조성된 우호적 교역관계 강화 및 양국 기업의 효과적인 FTA 혜택 활용을 위한 홍보 추진
- 내수 소비 증가에 따른 소비재 마케팅 확대 및 중상류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제품군 집중 지원

□ 콜롬비아 국내 수요 맞춤형 마케팅

- 콜롬비아 정부 정책 및 산업 트렌드에 맞춘 진출 품목 선정 및 집중 마케팅 필요
- 최근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건설플랜트 사업이 중장기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음.

- 또한 의료, 교육 등 정부정책과제 분야에 대한 선택적 진출 추진 및 마케팅을 통해 효과적인 시장 진출 가능

□ 대중소 공동 프로젝트 시장 진출

-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대기업 수주가 일반적이나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요구됨.
- 이에 따라 대중소 공동 컨소시엄 구성 또는 대기업 수주 후 협력 업체 형태의 동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를 통해 콜롬비아 현지 시장 기반 확보 및 추가수주 또는 신규 사업 발굴 등이 가능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남미 물류 허브로서의 진출 가치 검토

- 콜롬비아는 아메리카 대륙 중심에 위치한 국가이자 태평양과 대서양 항구를 모두 보유한 유일한 국가임.
- 또한 북미와 남미 시장 전체 진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항공, 해상 운송 편의성은 물론 국가 전역에 설치된 영구 자유 무역지대 활용도 가능
- 이에 따라 콜롬비아를 미주 시장 진출 기지로 활용할 경우, 콜롬비아 내수시장과 함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FTA 미체결 국가 시장 진출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IV. 시사점

□ 한-콜롬비아 FTA의 의의

- 한-콜롬비아 FTA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세 번째로 체결한 FTA이며 소비시장, 자원, 자체 산업기반,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시장과의 FTA임.
- 과거 칠레, 페루와의 FTA가 소비시장 보다는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타겟으로 했다면 콜롬비아와의 FTA는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효과 창출이 가능한 FTA라고 할 수 있음.

□ 중남미 필수 협력 국가

- 콜롬비아는 중남미 3위 수준이자, 광물, 석유, 천연가스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시장으로 FTA를 활용한 다양한 양국 협력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최근 본격적인 국가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됨에 따라 한국의 국가 홍보, 브랜드 인지도 개선 및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 신흥시장팀 성기주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2-017

최근 콜롬비아 주요 경제이슈와
한-콜 FTA 활용 방안

발 행 인 | 오 영 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2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